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트럼프 무역 협상 가능성 시사 속 상승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4일(월) 미 증시는 장 초반 EU, 멕시코 30% 관세 발표 등 트럼프 관세 우려 재점화 속 하락 출발 하였으나, 이후 트럼프의 협상 가능성 시사 발언에 시장 내 TACO 트레이딩 심리 재가동됨에 따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0.20%, S&P500 +0.14%, 나스닥 +0.27%).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의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타결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및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이 역시도 '50일'이라는 시한을 러시아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

실제로, 지난 주말 간 EU, 멕시코에 30% 관세를 통보하는 등 최근 트럼프는 25개 국가에 관세 서한을 발송하며 관세 불확실성 점증 속 이 날 미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 다만, 트럼프의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은 열려있다'라는 발언에 시장 참여자들의 TACO 트레이딩 심리가 재가동됨에 따라 미 증시는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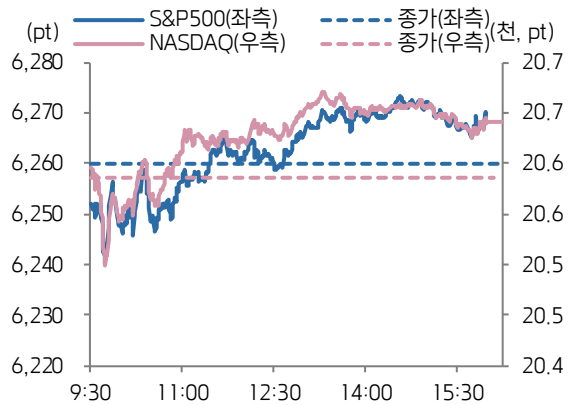
트럼프 관세 행보에 대한 증시 민감도 완화 속 금일 발표될 미국 6월 CPI에 대한 증시 민감도는 이전 대비 클 것으로 예상. 3분기 초 접어들어 시점에서 보편관세 10% 등 관세발 물가 상승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데이터이기 때문. 특히, 최근처럼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연준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CPI 데이터는 정부, 연준, 투자자에게 향후 정책 방향성의 주요 판단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

일단, 6월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의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각각 2.6%(vs 5월 2.4%), 2.9%(vs 5월 2.8%)로 전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형성. 전월 대비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지만,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에 그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다만, 만약 시장 예상치 대비 0.2%p를 상회하는 CPI 쇼크가 나타날 경우 최근 반등 속 밸류에이션 부담에 노출된 미 증시에 조정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S&P500 12개월 선행 PER 22.4배 vs 5년 평균치 20.1배).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주요국 고율 관세 부과 예고로 장 초반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으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고유 정책 기대감 속 금융주 강세 현상 지속된 결과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권 마감 (코스피 +0.83%, 코스닥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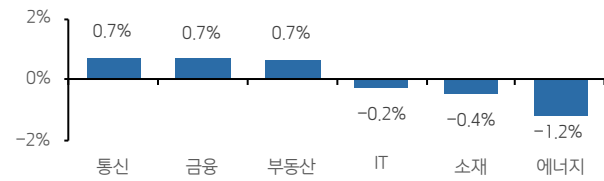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6월 CPI 지표 경계감 속 코스피 3,200pt선을 전후로 수급 공방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편, 월 초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자사주 소각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의 후속적인 거버넌스 개선 정책 추진 뉴스플로우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이르면 7월 말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 증시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 기조가 명확한 상황에서 7월 말까지 거버넌스 및 주주환원 정책주는 증시 내 핵심 테마로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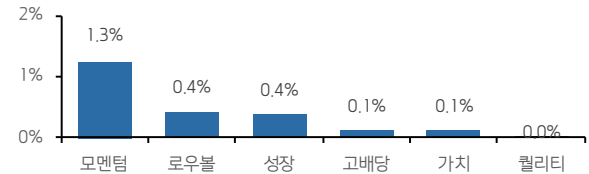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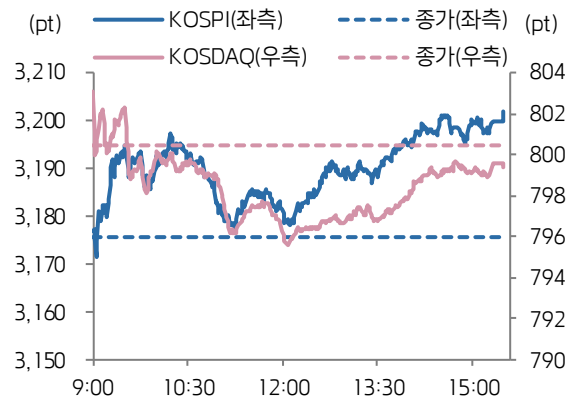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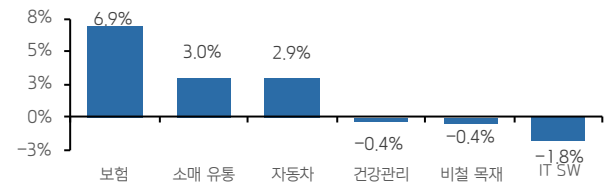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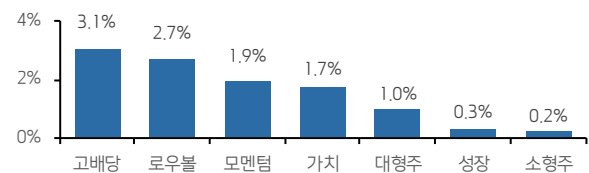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8.62	-1.2%	-16.49%	GM	53.33	-0.11%	+0.69%
마이크로소프트	503.02	-0.06%	+19.8%	일라이릴리	799.34	+0.8%	+3.93%
알파벳	181.56	+0.76%	-3.86%	월마트	95.78	+1.46%	+6.56%
메타	720.92	+0.48%	+23.33%	JP모건	288.70	+0.64%	+22.39%
아마존	225.69	+0.3%	+2.87%	엑손모빌	113.92	-1.31%	+7.83%
테슬라	316.90	+1.08%	-21.53%	세브론	151.65	-2.36%	+7.15%
엔비디아	164.07	-0.52%	+22.2%	제너럴일렉트릭	95.78	+1.5%	+6.6%
브로드컴	275.60	+0.44%	+19.52%	캐터필러	405.77	-0.04%	+12.81%
AMD	146.24	-0.12%	+21.07%	보잉	230.51	+1.62%	+30.23%
마이크론	118.61	-4.75%	+41.25%	넥스트에라	75.04	+0.9%	+6.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202.03	+0.83%	+33.45%	USD/KRW	1,383.00	+0.52%	-6.07%
코스피200	432.49	+1.03%	+36.08%	달러 지수	98.11	+0.26%	-9.57%
코스닥	799.37	-0.14%	+17.87%	EUR/USD	1.17	-0.21%	+12.65%
코스닥150	1,311.25	-0.03%	+16.06%	USD/CNH	7.17	+0.01%	-2.26%
S&P500	6,268.56	+0.14%	+6.58%	USD/JPY	147.72	+0.2%	-6.03%
NASDAQ	20,640.33	+0.27%	+6.88%	채권시장			
다우	44,459.65	+0.2%	+4.5%		가격	DTD(bp)	YTD(bp)
VIX	17.20	+4.88%	-0.86%	국고채 3년	2.475	+2.8bp	-12bp
러셀2000	2,249.73	+0.67%	+0.88%	국고채 10년	2.887	+5.7bp	+1.6bp
필라. 반도체	5,646.72	-0.87%	+13.39%	미국 국채 2년	3.900	+1.5bp	-34.2bp
다우 운송	16,102.43	-0.66%	+1.3%	미국 국채 10년	4.433	+2.4bp	-13.6bp
상해종합	3,519.65	+0.27%	+5.01%	미국 국채 30년	4.977	+2.8bp	+19.6bp
항셍 H	8,732.74	+0.52%	+19.79%	독일 국채 10년	2.729	+0.4bp	+36.2bp
인도 SENSEX	82,253.46	-0.3%	+5.27%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370.85	-0.23%	+9.7%	WTI	66.98	-2.15%	-3.61%
MSCI 전세계 지수	922.56	-0.4%	+9.65%	브렌트유	69.21	-1.63%	-7.27%
MSCI DM 지수	4,046.84	-0.42%	+9.14%	금	3,359.10	-0.15%	+23.64%
MSCI EM 지수	1,229.13	-0.17%	+14.29%	은	38.46	-0.55%	+31.53%
MSCI 한국 ETF	73.20	+0.88%	+43.84%	구리	551.50	-0.85%	+36.97%
디지털화폐				BDI	1,663.00	+13.52%	+66.8%
비트코인	120,198.06	+0.89%	+28.26%	옥수수	418.50	+1.52%	-5.69%
이더리움	3,005.24	+0.43%	-10.2%	밀	542.00	-0.55%	-6.71%
				대두	1,007.25	+0%	-1.76%
				커피	301.85	+5.36%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